

전남선관위 “나눔과 배려 문화 확산”

1390행복봉사단, 사회복지관·장애인요양원 등 찾아 온정 전해
급식봉사활동·한글교실 지원...240만원 상당 후원물품 전달도



전남선관위관리위원회 직원 봉사단체 '1390행복봉사'는

27일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과 목포공생원, 목포장애인요양원에서 급식봉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1390행복봉사단'은 이날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의 어려운 시설을 찾아 노약자 및 장애인 180여명의 급식봉사활동과 노인 한글교실 지원, 시설 주변정리 작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1390행복봉사단'은 전남 각 선관위 직원들이 월급

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모은 돈으로 전자레인지·생필품 등 240여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시설에 전달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작은 봉사활동이지만 기쁨과 보람은 2배가 된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봉사활동 실천으로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390행복봉사단'은 2008년 구성되어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날 도선관위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시·군선관위 직원들도 따뜻한 온정을 펼칠 예정이다.



영암군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간담회·인권교육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 25일 이용자와 보호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간담회 및 장애인 인권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간담회'는 금년 3월부터 11월 까지 1년여동안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과 주요 복지사업에 대하여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에 있어 더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돕고, 이용

자 및 보호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장애인 인권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간담회가 장애인분들에게 복지관 이용에 있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 전문성 향상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오늘 광주시의회서 개최

광주시교육장애인협회는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28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 전문성 향상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시에서는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활동지원사와 연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활동지원사가 매칭되더라도 장애의 특수성이 반영된 케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어 최중증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정희경 교수 발제를 시작으로 좌장으로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시작한다. 토론자로는 어울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강은영 부장, 활동지원사 문미자, 최중증장애인 당사자 홍성혁, 광주시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 교육장애인협회 장익선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중증장애인기회현상을 해소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향상 및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밝혔다.

진도 대호그룹, 따뜻한 후원의 손길

장애인 시설 등 소외계층에 100여만원 진도 김 기탁

진도군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따뜻한 후원의 손길이 펼쳐졌다. 진도군의 향토 기업인 대호그룹(회장 김남중)이 최근 장애인 시설과 병원, 교회, 진도군청을 찾아 총 1,000여만원 상당의 진도 김을 기탁했다. 다문화 가정과 결혼 아동을 위해 진도군청에 진도김 20박스를 비롯 진도 노인복지회관, 서경노인복지관,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 신진노인요양원, 진도군노인요양원, 진도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진도사랑노인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또 진도군 장애인 종합 복지관, 진도군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진도침례교회, 임회중만교회, 한국병원, 전남병원 등 장애인과 소외 계층을 위해 진도



김을 기탁했다. 대호그룹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경영 실천을 위해 진도 김 기탁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병원 운영 근거 마련

전남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병원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남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들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기관이나 병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장애인 건

강검진 기관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 친화병원 및 건강검진 기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개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특성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보라미 의원은 “공공성이 강한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료장비 구입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과제다.”라고 밝혔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아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